
호서·호남지역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재검토

－ 주구토광묘, 주구묘, 분구묘에 대한 학사적 인식 －

전 민 식*

목 차

I. 머리말

II. 호서·호남지역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학사적 검토

1.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인식 : 주구토광묘와 주구묘, 그리고 분구묘
2. 문제의 소재

III. 호서·호남지역 내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

1. 선행연구 내 표지유적의 고고학적 양상
2. 표지유적에 근거한 고고학적 해석

IV. 호서·호남지역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인식과 용어 제안

V. 맺음말

* 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 대학원

국문초록

호서·호남지역에서는 시신이 안치되는 주 매장시설의 주변에 일정한 형태의 도랑, 즉 주구를 두른 무덤인 주구토광묘, 주구묘, 분구묘로 명명되는 묘제가 확인된다.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무덤을 칭하는 용어와 그 인식의 범위는 연구자마다 다르다. 또한, 분구묘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용어를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도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한반도 호서·호남지역 내에서 확인되는 주구를 두른 무덤 구조에 대한 선행학들의 접근 방법과 기준, 인식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가설적으로 용어를 제안하였다.

주구를 두른 무덤의 연구자들간 인식은 주 매장시설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과 계통에 중점을 둔 관점, 주구와 분구시설을 중심으로 한 관점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용어로 명명하였다.

필자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구를 두른 무덤 구조를 하나의 계통으로 볼 수 있으며, 주 매장시설을 기준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주 매장시설이 지상에 위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지하식과 반지하식의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는 것을 주구묘로 통칭한 뒤 주 매장시설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주 매장시설이 토광이면 주구토광묘, 목관 또는 목곽이면 각각을 주구목관묘와 주구목곽묘, 옹관이 확인되면 주구옹관묘로 명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주구를 두른 무덤구조 중에서도 옹관이 분구 대상부 또는 주구에 위치함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는 모순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호남지역의 경우 주구묘에서 옹관고분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 매장시설이 옹관인 사례에 주목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주제어 ■

호서·호남지역, 주구묘, 주구토광묘, 분구묘, 주 매장시설, 옹관묘

I. 머리말

호서·호남지역에서는 원삼국시대를 중심으로 주구를 두른 무덤 구조인 이른바 주구토광묘(周溝土塋墓), 주구묘(周溝墓), 분구묘(墳丘墓)가 확인된다. 특히, 호남지역의 주구토광묘는 영산강유역 옹관고분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최성락 2002).

무덤은 당시 사회의 유행이 뿌리 깊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호서·호남지역에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지속되는 주구(周溝)라는 특징은 당시 묘제(墓制)의 변화상을 이해하는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호서·호남지역에 존재하는 주구를 두른 무덤 구조의 지역성을 검토하고 그 전개양상을 살피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용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30여년 전 천안 청당동유적, 보령 관창리유적 등 주구를 두른 무덤구조가 확인되면서 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더불어 분구묘라는 용어가 도입되면서 호서·호남지역의 무덤구조는 주 매장시설이 지상에 위치하는 분구묘라는 관점이 보편화되었으나, 주 매장시설이 지하에 위치하는 주구토광묘, 주구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명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주구를 두른 무덤구조는 주구토광묘 혹은 주구묘로 불리며, 고분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의 묘제(최성락 2002)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분구묘의 범주에 포함시켜 바라보기도 한다(김승옥 2011; 임영진 2002; 최완규 2000).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어 명칭과 용어 뿐만 아니라 해석까지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호서·호남지역 내에서 확인되는 주구를 두른 무덤구조에 대한 학사적 검토를 통해 각각의 용어에 부여된 기준과 그에 따라 달라지는 고고학적 해석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용어를 가설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II. 호서·호남지역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학사적 검토

1.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인식 : 주구토광묘와 주구묘, 그리고 분구묘

본 장에서는 연구사 검토를 통해 주구를 두른 무덤의 개념에 대한 각 연구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구토광묘에 대한 연구는 강인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강인구는 천안 청당동유적에서 발굴된 눈썹형의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해 주구토광묘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강인구 1994). 그는 이와 같은 형태의 묘제에 대해 매장주체시설을 기준으로 무덤의 용어를 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강인구는 주구토광묘의 분포와 입지, 주구의 형상, 분구, 매장주체시설 그리고 부장유물로 나누어 연구하였으며, 주구토광묘¹⁾의 목관과 마형대구 등이 중국의 장성지대와 요령성 지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기원을 중국의 북부지방에서 대동강유역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측하였다(강인구 1994). 강인구의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용어의 첫 제안이라는 의의가 있다.

이후 함순섭에 의해 매장주체시설에 따른 용어의 세분화가 제안되었다(함순섭·김재홍 1995). 주구를 갖춘 분묘²⁾라는 분류 편의를 위해 사용한 용어는 묘제의 평면형태에 대한 고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속 시설을 나열한 것이므로 학술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함순섭은 주구의 본래 형태가 방대형의 봉토封土를 감싸는 방형 혹은 장방형을 기본 모티브로 하고 있으나 분묘의 입지에 따라 주구의 일부를 생략한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며, 주구의 평면형태를 용어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견해(강인구 1994)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분묘의 형식 분류는 매장주체시설의 구조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이 제안된 주구토광묘라는 용어의 토광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 토광은 묘광墓坑을 조성하는 기본 구조이므로 단순 토광직장묘土壙直葬墓만을 토광묘로 부를 수 있고 매장주체시설의 구조가 파악되는 경우는 그 구조에 따라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보령 관창리유적의 사례처럼 매장주체시설이 지상의 성토부盛土部에 설치된 경우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다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보다 주구가 설치된 분묘를 간략히 주구묘로 통칭하고 이를 직장묘로서 주구토광묘, 목관을 주체로 한 주구목관묘, 목곽을 주체로 한 주구목곽묘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함순섭·김재홍 1995). 함순섭의 제안은 주구토광묘의 토광 부분을 세분화하여 개념을 주구묘로 정리한 뒤 매장주체시설을 분류해 주구토광묘와 주구목관묘, 주구목곽묘로 구별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시 분구 내 매장시설이 있는 주구를 갖춘 무덤구조까지 포함하여 용어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최완규는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해 계통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최완규 1996; 2000; 2003). 그는 주구를 두른 무덤 중에는 기존의 주구토광묘와 다른 계통의 무덤구조가

1) 강인구가 설정한 주구토광묘는 매장주체시설의 무덤구조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용어상 토광의 개념에 목관과 목곽을 포함하였다.

2) 주구를 갖춘 분묘라는 용어는 아래의 문헌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1993, 『청당동 I』.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 같은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하여 주구묘라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보령 관창리유적, 서천 당정리유적, 익산 영등동유적에서는 명확한 매장주체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주구토광묘라고 칭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주구묘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매장주체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묘제를 매장주체시설에 따른 분류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가졌다(최완규 1996). 또한, 매장주체시설의 위치에 따라 구분한 두 유형이 주구를 두른 무덤이라는 개념에서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될 만큼 동질성을 찾기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천안 청당동유적, 청주 송절동유적, 공주 하봉리유적 등의 주구를 두른 무덤구조는 기존 토광묘와 구분짓는 의미에서 주구토광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반면, 보령 관창리유적, 서천 당정리유적, 익산 영등동유적의 분묘는 평면에서 방형뿐만 아니라 장방형, 원형, 말각방형 등 다양한 형태가 발견되므로 이 유적들의 특징을 포괄하여 주구묘라 명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더불어 최완규는 주구토광묘와 주구묘를 입지, 매장주체시설 등을 통해 상호 비교하였다. 주구토광묘와 주구묘는 입지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주구토광묘는 구릉의 경사면에 매장주체시설인 토광묘의 장축을 등고선과 평행하게 배치하는 반면, 주구묘는 구릉의 정상에 분포하고 절개부 위치를 기준으로 볼 때 방향은 일정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주구의 평면형태에서도 주구토광묘는 마제형馬蹄形으로 경사의 위쪽에서 매장주체시설이 토광묘를 감싸지만, 주구묘는 절개부의 위치나 숫자에 따라 유형 분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장주체시설의 위치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주구토광묘의 매장주체시설은 주구에 비해 깊게 조성되지만, 주구묘는 주구 시설 이외에 확인되지 않고 있어 매장주체시설이 지상에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주구묘의 매장주체시설이 반드시 토광묘라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주구 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형 옹관편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옹관묘가 매장주체시설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주구토광묘와 주구묘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매장주체시설의 차이도 존재하므로 같은 계통의 무덤구조로 볼 수 없다고 추정하였다. 결국, 주구토광묘의 제 속성은 수혈식석곽분과 많은 공통점이 발견되는 반면, 주구묘의 제 속성은 영산강유역의 대형 옹관묘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였다(최완규 1996).

위의 논지를 통해서 그가 주장한 주구묘의 개념이 분구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확장되었고, 분구묘를 마한권역의 무덤으로 인식하여 봉토묘-(봉토)고총, 저분구묘-(분구)고총으로 이행됨을 주장하였다(최완규 2000; 2002). 최완규의 연구는 주구를 두른 무덤을 백제계로 이행되는 주구토광묘와 영산강유역의 대형 옹관묘로 이행되는 주구묘로 구분해 보는 관점이었다. 주구를 두른 무덤이 어떠한 형태로 이행되는지를 두 계통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견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최성락은 호남지방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주구토광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용어에 대해서는 최완규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주구묘의 매장주체시설이 토광이므로 충청 내륙지역의 무덤과 같이 주구토광묘로 부르자는 제안을 하였다(최성락 2000). 주구토광묘와 주구묘의 관계, 주구토광묘의 등장시점 그리고 영산강유역 주구토광묘의 특징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최성락 2002).

먼저, 충청 내륙지역의 주구토광묘와 최완규가 주장하는 호남지역에 분포하는 주구묘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호남지역과 충청지역 사이에서 묘제는 실질적으로 뚜렷한 지역적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함평 순촌유적을 사례로 들어 주구묘 대부분의 주 매장시설이 토광묘이고, 옹관은 주구나 대상부에 주로 위치하므로, 충청 내륙지역의 무덤과 같이 주구토광묘로 명명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주구토광묘의 등장시점을 영광 군동유적(라)의 A-18호묘를 표지유적으로 기원전 1세기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철기시대의 시작과 관련된다고 생각하였다. 호남지역 주구토광묘는 처음에 방형의 주구를 가진 단독묘에서 점차 저분구의 대상부와 주구에 옹관이나 토광을 추가로 매장하기 시작하여 다장의 고분으로 발전됨을 주장하였다. 고분으로 발전되는 시기를 3세기 말이나 4세기 초로 추정하며 영산강유역 주구토광묘의 하한 연대를 3세기 후반으로 보았다.

또한, 영산강유역 주구토광묘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우선 주구의 형태 변화에 있어 충청지역이나 영남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순서인 방형에서 타원형 그리고 제형 순서로 변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영남지역의 토광묘와 충청 내륙지역의 토광묘는 목관묘나 목곽묘로 뚜렷이 구분되지만, 영산강유역의 주구토광묘에서는 목관이나 목곽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주구토광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차이를 언급하였다. 영산강유역 주구토광묘에서 출토되는 철기는 농공구류가 대부분이며 철촉, 철모, 철정 등 소수의 무기류가 확인되었다. 반면, 동시기 3~4세기경 금강유역과 낙동강유역의 경우 무기류가 급증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크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최성락은 주구토광묘를 영산강을 포함한 호남지역에서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 후반까지 성행하던 무덤으로 인식하였다.

이후 최성락은 주구묘, 분구묘와 관련된 연구 성과와 지역별 묘제의 특징을 정리하고 분구묘라는 용어를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용어의 기원을 살피며 무덤과 관련된 용어 설정에 대해 제안하였다. 영산강유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 매장시설을 근거로 용어를 명명하여야 하며, 1~3세기 무덤을 옹관묘와 토광묘로 구분하고 토광묘의 주변에 주구가 있으면 주구토광

묘로 칭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최성락 2007).

이 연구는 최완규가 각각 다른 계통으로 인식하였던 주구를 두른 무덤을 하나의 계통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매장주체시설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영산강유역 주구토광묘의 특징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보여 준 연구였다.

반면, 임영진은 충청지역에서 나타나는 눈썽형의 주구를 두른 주구토광묘의 입지, 매장시설, 출토유물 등이 주구묘와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며, 서북한 계통의 토광목관묘에 주구가 부가된 것으로 계통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주구묘의 주구 형태가 세분화되지 않고 분구를 비롯한 주구의 상부가 삭평된 채 발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임영진 2000).

이후 임영진은 영산강유역권 묘제의 범위와 그 용어를 정리하였다(임영진 2002). 서해안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조사된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하여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삼국시대 고분인 대형 옹관묘 사이의 공백기에 해당하는 묘제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영산강유역권에서 사용되었던 주구를 두른 무덤들을 정리하고 그 무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지상에 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눈 뒤, 지하에 매장주체시설을 봉하는 분을 가진 것을 봉분묘封墳墓로, 지상에 구를 만들어 분으로 삼고 그 안에 매장주체시설을 안치한 것을 분구묘로 구분하였다. 또한, 주구와 분구라는 개념이 옹관고분과 주구묘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특징으므로 주구묘를 분구묘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구묘를 방형목곽분구묘와 제형목곽분구묘로 구분해 이들을 시기적인 차이로 인식하였다. 그는 주구를 가진 분구묘는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 서남부지역의 마한계 묘제로 보았으며 이 지역에 백제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마한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다(임영진 2002). 임영진의 연구는 주구를 두른 무덤이 그동안 매장주체시설에만 치중된 것에 반해 주구와 (저)분구를 함께 살펴보면서 대형고분과의 연관성을 제기하였다.

이택구는 묘제를 분포, 입지, 장축방향, 축조방법, 매장시설, 추가매장시설, 출토유물을 바탕으로 충청내륙의 주구토광묘와 서해안지역의 분구묘로 분류하였다(이택구 2008). 분구묘와 주구토광묘 사이의 차이를 속성표로 정리하여 분포, 입지, 축조방법, 매장시설 등을 통해 구분하였다. 그리고 주구토광묘 축조집단은 마한이라는 연맹국가의 특성상, 동일 국가 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적인 독자성을 갖는 다른 집단의 묘제로 정의하였다.

이후 이택구는 전북지역의 분구묘에 빈도, 수치 등의 제 속성을 대입하여 분석과 분류를 하였다(이택구 2015). 그 결과 마한의 묘제를 한 가지 용어로 규정하기보다 분구묘와 같이 서해안을 따라 넓게 확인되는 묘제가 지역성과 개별성을 가진 독자적 묘제인 것으로 분류하여 분구묘와 주구토광묘가 공존했던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주구토광묘와 분구묘는

함께 연구할 경우 연구결과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분리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다장이 확인되는 분구묘는 매장주체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분구의 중앙으로 추정되는 곳에 안치된 매장유구는 주 매장시설, 그 이후로 안치된 유구를 추가 매장시설로 분류하자고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이택구는 선분구 후매장이라는 축조방식과 출토유물을 바탕으로 전북지역 마한 묘제의 출현과정을 유추하였다(이택구 2015). 그리고 서해안지역에 넓게 확인되는 분구묘와 개별성을 가진 지역적인 묘제인 주구토광묘를 마한의 묘제로 제시하였다. 전북지역 분구묘 분석을 통해 이들을 서북부, 서남부라는 두 지역으로 나누어 마한 소국간의 개별성, 차이성, 지역성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승옥은 마한계 묘제의 분포와 형식분류, 시공간적 발전과정을 추론하고자 하였다(김승옥 2011). 마한계 분묘를 크게 분구묘와 봉토묘로 나누었으며, 분구묘는 입지, 매장시설, 주구, 장제, 분포지역, 연대 등을 근거로 성토분구묘, 적석분구묘, 층석분구묘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봉토묘는 주구토광묘와 단순토광묘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성토분구묘와 주구토광묘는 다시 분포, 입지, 축조방법, 주구 형태, 매장시설, 주요 유물 등을 통해 비교 검토하였다. 공반유물을 토대로 시간성을 추론하고 각 단계의 지역성을 살피며 묘제의 등장과 발전과정을 추론하였으며 이들의 이행을 설명하고자 하였다(김승옥 2011). 김승옥의 연구는 마한계 묘제를 봉토묘와 분구묘로 나누고 이들을 추가적으로 분류하여 여러 속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백제의 영역화 과정까지 추론하였던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권오영은 영산강유역 고분의 특징과 마한이라는 정치체의 유관함을 살피고자 하였다(권오영 2015). 마한의 묘제는 곧 분구묘라는 인식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다른 묘제와의 관계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구토광묘와 분구묘를 다른 묘제가 아닌 각각의 시간적인 속성으로 바라보고 과정을 설명하였다. 마한이라는 개념에 대한 용어를 검토하였으며 분구묘와 다른 묘제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분구와 봉토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분구묘라는 용어가 다양한 변이를 보이고 있어 적어도 경기-충청-전라의 서부지역에 분포하는 무덤을 분구묘라고 부를 수 있음에 동의하였다. 또한, 봉토묘는 말 그대로 매장주체시설을 흙으로 봉하는 것이므로 1차 매장 후의 추가장 과정에서 일부 봉토가 제거되고 다시 복원되지만 추가장은 기본적으로 봉토 안에서 매장이 이루어져 봉토의 원형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분구묘는 별도의 공간에 추가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장에 따라 고분의 외형이 변화해 봉토묘와 분구묘의 구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구묘와 주구토광묘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두 묘제를 근본적으로 다른 묘제로 보지만 목관과 마운드, 주구라는 공통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지역권 중심끼리 비교하면 지역 차가 현저해 보이거나, 접경지역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곡성 대평리유적을 예로 들어 분구묘와 주구토광묘를 각각 다른 묘제로 보지 않고 속성으로 보아 매장주체시설의 위치에 따라 점차 주구토광묘적 속성에서 분구묘적 속성이 강해지는 것을 설명하였다. 권오영은 분구묘의 출현기에 주구토광묘적 속성이 선행하는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주구토광묘적 속성이 강화되면서 현재의 주구토광묘로 전개되는 경우, 동시에 분구묘적 속성이 등장하여 혼재되었을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권오영 2015). 권오영의 연구는 주구토광묘와 분구묘를 각각의 다른 묘제로 보기보다 하나의 속성으로 설명했다. 묘제를 시간적인 연속성을 통해 각 속성을 설명한 점은 주구토광묘와 분구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선행연구의 인식

연구자	명칭	유적	기준	비고
강인구	주구토광묘	천안 청당동유적	주 매장시설	강인구 1994
함순섭	주구묘, 주구목관묘, 주구목곽묘	천안 청당동유적	주 매장시설	함순섭·김재홍 1995
최완규	주구토광묘, 분구묘(주구묘)	익산 영등동유적	주 매장시설, 분구	최완규 1996; 2000
최성락	주구토광묘	함평 월야 순촌유적	주 매장시설	최성락 2000; 2002; 2007
임영진	분구묘(주구묘)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	주구, 분구	임영진 2000; 2002
이택구	주구토광묘, 분구묘	완주 상운리, 전북지역 분구묘유적	주 매장시설, 축조방식	이택구 2008; 2015
김승욱	주구토광묘, 성토분구묘	완주 상운리, 중서부지역 마한계 분묘 유적	출토유물 중심	김승욱 2011
권오영	주구토광묘, 분구묘	곡성 대평리유적	주 매장시설, 주구	권오영 2015

2. 문제의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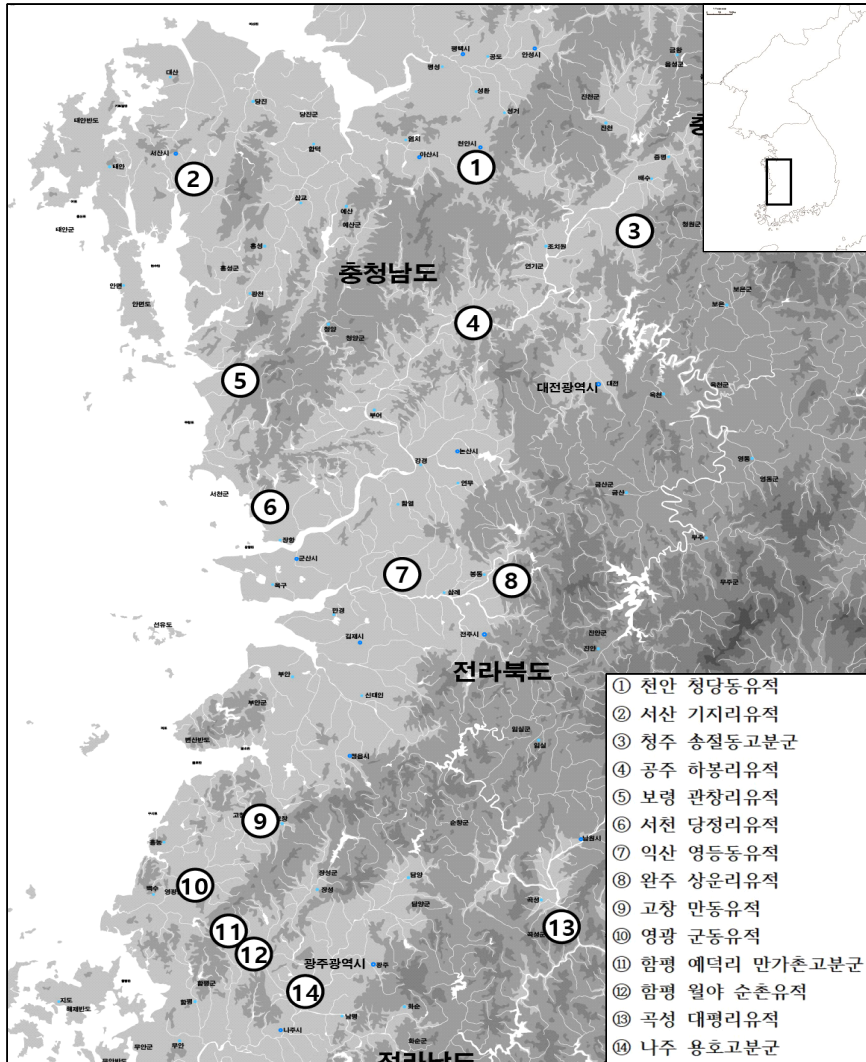
선행연구에서는 묘제를 구성하는 요소인 입지, 주구의 평면형태, 주 매장시설의 형태 등을 중심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주 매장시설의 형태를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하였지만, 주구와 분구의 유무와 그 형태를 기준으로 삼는 견해도 존재한다. 또한, 현재 까지도 주구토광묘와 주구묘를 단일 계통으로 보는 견해와 다른 계통으로 보는 견해가 상충하고 있다. 필자는 적어도 호남지역의 주구를 두른 무덤은 단일 시기에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 연속적으로 존재하고 변용되다가 고총고분의 단계로 발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구를 두른 무덤의 계보를 단일 계통으로 볼 것인가, 서로 다른 계통으로 볼 것인가의 관점에 따라 삼국시대 이후 호남지역 고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그동안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선학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각 연구자마다 사용하는 용어의 근거와 표지가 되는 유적과 유구는 분명하다. 그러나 표지가 되는 유적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상호 비교를 통해 서로의 인식의 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연구자들이 제시한 용어 설정의 근거를 재정리하기 위해 설정한 표지유적과 유구의 특징을 재검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주구를 두른 무덤을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하고, 용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Ⅲ. 호서·호남지역 내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고고학적 해석

1. 선행연구 내 표지유적의 고고학적 양상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주구를 두른 무덤을 검토하겠다. 각 연구자들이 본인 논지의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은 14개소 유적을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 유적들의 분포양상은 아래의 〈도면 1〉과 같다.



도면 1. 선행연구 내 표지유적의 분포와 관련 유적

먼저, 호서·호남지역에 분포하는 관련 유적을 검토하고, 주 매장시설, 주구의 평면형태, 입지, 주요 출토유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겠다.

주 매장시설에서는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거나, 토광, 목관, 목곽, 옹관이 확인되고 있다. 유적마다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기보다 전체적인 양상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지역적으로 뚜렷한 차이 없이 충청지역과 전라지역 모두에서 보인다. 일부 연구자의 경우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주 구묘가 호남지역에서 꾸준히 확인되는 것을 근거로 호남지역과 충청지역이 계통성을 달리

한다고 보지만(최완규 1996), 보령 관창리유적과 서천 당정리유적 등에서도 확인되어 지역적, 계통적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주 매장시설의 차이로 충청지역에서는 목곽이 조사되는 반면, 호남지역에서는 옹관이 조사되었다. 목곽은 충청지역과 영남지역에서 빈번히 보이는 주 매장시설이며, 옹관은 영산강유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보이기 어려운 주 매장시설이다. 호남지역 내 주 매장시설로 옹관이 안치되는 묘제는 아직까지 많이 조사되지 않았으나 확인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함평 월야 순촌유적과 나주 옹호고분군 등이 있다.

표 2. 선행연구에서 다룬 주구를 두른 무덤 유적 현황

순번	유적	주구를 두른 무덤 수	주 매장시설	주구의 평면형태	입지
1	천안 청당동유적	17기	목관, 목곽	눈썹형	정, 사
2	서산 기지리유적	59기	X, 토광, 목관,	눈썹형, 방형, 원형, 제형	사
3	청주 송절동고분군	47기	토광, 목관, 목곽	방형	사
4	공주 하봉리유적	8기	목관	방형	사
5	보령 관창리유적	99기	X, 토광, 목관	방형, 원형	정, 사
6	서천 당정리유적	23기	X	방형	정
7	익산 영등동유적	5기	X, 토광	방형, 원형	정
8	완주 상운리유적	30기	X, 토광, 목관	방형, 원형, 제형	정, 사
9	고창 만동유적	13기	X, 토광, 목관, 목곽	ㄱ자형, 11자형, ㄷ자형	사
10	영광 군동유적(라)	22기	X, 토광, 목관	방형, 타원형, 제형	사
11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	14기	X, 토광, 목관	ㄷ자형, 제형	저·구
12	함평 월야 순촌유적	44기	X, 토광, 옹관	방형, 제형	사
13	곡성 대평리유적	27기	X, 토광, 목관	방형, 제형, 원형	총적대지
14	나주 옹호고분군	19기	X, 토광, 옹관	타원형, 제형	사

정 : 정상부
 사 : 사면부
 저·구 : 저평한 구릉부

주구의 평면형태는 다양하게 조사되었으며 지역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방형과 원형이 주로 전체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영산강유역에서는 제형의 형태가 조사되었다. 이는 영산강 유역에서만 보이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양상이다. 제형의 평면형태에 대해서는 방형 또는

원형의 평면형태에서 추가장을 통해 수평적으로 확장되며, 평면형태가 제형으로 변화함을 추정하였다(임영진 2002). 그리고 제형의 주구를 영산강유역에서만 보이는 특징으로 생각하였다. 주구의 평면형태로 제형이 확인된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영광 군동유적(라),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 함평 월야 순촌유적, 나주 용호고분군이 있다.

유구의 입지는 정상부와 사면부로 나눌 수 있다. 입지에서는 지역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유적의 자연적인 입지와 지형에 따른 차이로 여겨진다.

본 절에서는 호서·호남지역의 주구를 두른 무덤의 분포를 제시하고, 연구사에서 주로 언급된 14개소 유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호서·호남지역 내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표지유적을 중심으로 주 매장시설, 주구의 평면형태, 입지 그리고 주요 출토유물의 양상을 <표 2>로 정리하였다.

2. 표지유적에 근거한 고고학적 해석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해 제안을 한 연구자들의 근거와 표지를 묘제와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선행 연구자들이 주목한 시설을 크게 주 매장시설과 주구, 분구로 나누고, 해당 견해에 따른 연구자들의 근거와 표지유적, 타당성을 확인하겠다. 나아가 필자의 인식 범위를 논할 때 차용할 점과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점을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1) 주 매장시설을 중심으로 본 견해

본 절에서는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해 주 매장시설을 중심으로 본 견해를 분석하겠다. 주 매장시설은 묘제의 분류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주 매장시설은 지하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확인되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는 묘제와 확인되지 않는 묘제에 따라 용어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후속세대 연구자들에게 어려움이 따른다.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견해 중 명칭에 주목한 견해와 계통성에 주목한 견해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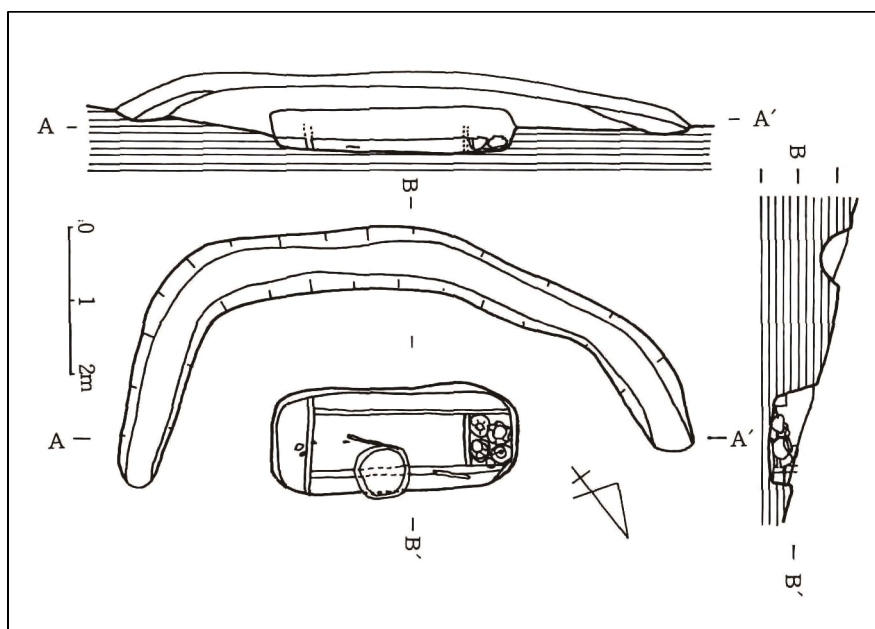
(1) 명칭에 주목한 견해

강인구는 처음으로 주구를 두른 묘제에 대한 명칭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묘제를 이루는 시설 중 매장주체시설의 형태에 주목하여 묘제를 바라보았다. 강인구는 일본의 방형주구

묘에서 그 명칭과 범위를 착안하였는데, 국내의 경우 방형주구묘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주구가 삭평되어 주구의 평면형태를 온전히 살필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묘제의 특징인 주구의 유무와 매장주체시설의 형식인 토광을 합하여 주구토광묘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강인구 1994).

또한, 호서지역의 천안 청당동유적 18호묘를 표지유구로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8호묘는 눈썹형의 주구를 두른 무덤을 주구토광묘로, 주구 시설의 형태보다 매장주체시설을 중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주구의 평면 형태가 아닌 매장주체시설에 따라 분류를 하고자 하였다. 또한 매장주체시설을 크게 토광과 석실로 구분하여 묘제의 명칭에 토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목관과 목곽 등을 토광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주구를 두른 묘제에 대한 첫 학술적 제안이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유구의 명칭은 주구토광묘로 명명한 반면 동일 유적 내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거나 직장 토광, 목관, 목곽, 옹관인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또한, 대부분의 묘제는 주 매장시설을 중심으로 직관적인 용어 설정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주구토광묘라는 용어는 직관성이 부족하므로 주 매장시설을 기준으로 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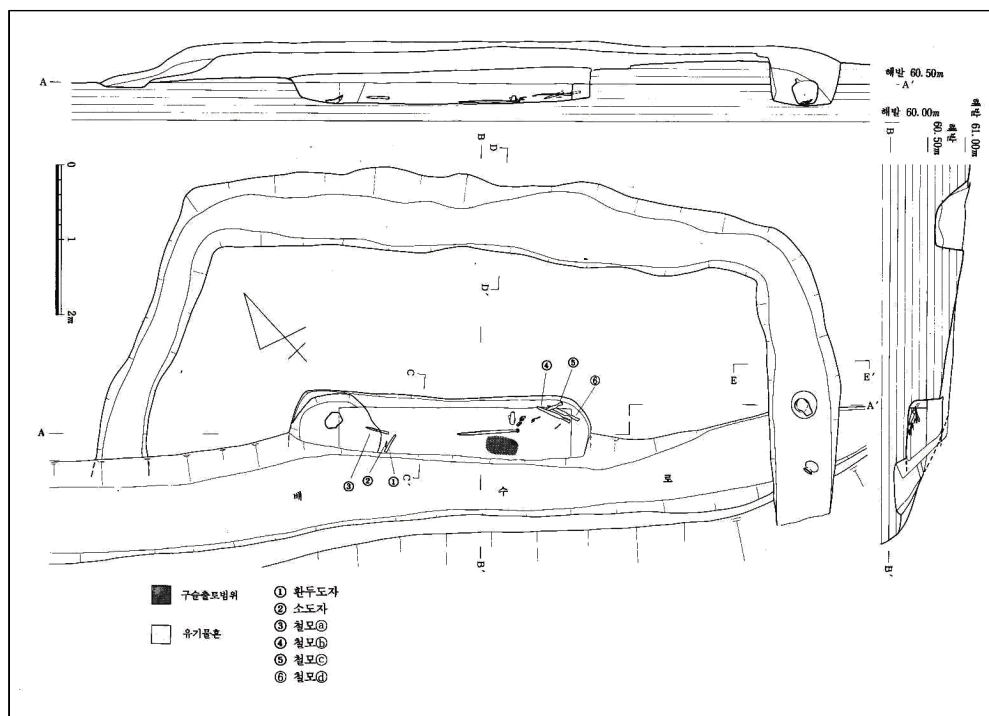


도면 2. 목관이 안치된 천안 청당동유적 18호묘(국립중앙박물관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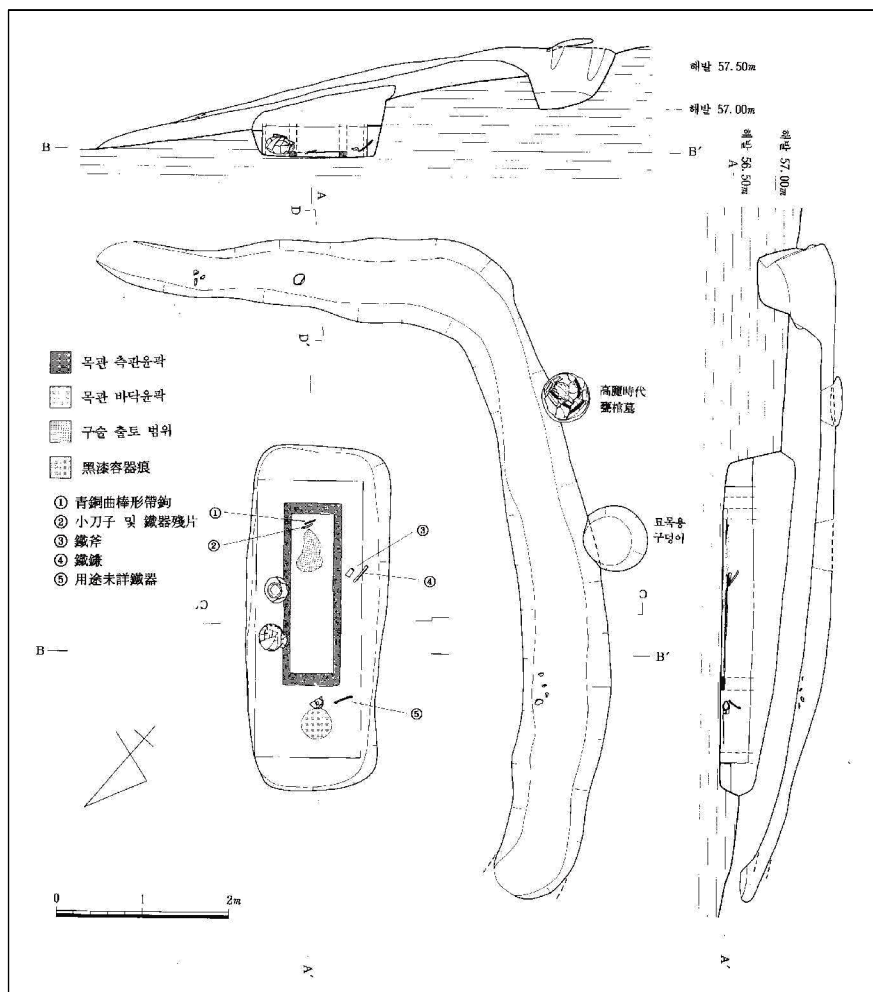
함순섭은 주구토광묘에서 매장주체시설을 지칭하는 토광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를 하고자 하였다. 일부 묘제에서 주구의 본래 평면형태를 확인할 수 없어 용어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강인구의 견해(강인구 1994)에 동의하면서도 매장주체시설의 세분화라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함순섭은 주구토광묘라는 용어의 ‘토광’ 부분은 발굴조사된 다양한 매장주체시설을 포괄하는 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토광직장묘인 경우 토광으로 지칭하고 매장주체시설별로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즉, 주구를 두른 무덤을 주구묘로 통칭하고 매장주체시설이 지하에 위치하고 관 흔적의 확인 유무에 따라 주구토광묘, 주구목관묘, 주구목곽묘로 분류하였다(함순섭·김재홍 1995).

그 대표적인 유구는 천안 청당동유적 14호묘와 20호묘로 확인할 수 있다. 함순섭은 20호묘의 매장주체시설인 목관, 14호묘의 목곽을 통하여 매장주체시설의 세분화를 제안하였다.

본 제안은 묘제의 주 매장시설을 중심으로 보고자하는 관점 속에서 나온 더욱 세분화된 제안이다. 필자는 위의 제안과 같이 주 매장시설을 통해 세분화한다면 더 많은 묘제를 분류하는데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구토광묘라는 용어에는 직관성이 부족하므로 꾸준하게 조사되는 주 매장시설에 용관을 안치한 주구를 두른 무덤 또한 위와 같은 개념으로 용어를 칭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도면 3. 목곽이 안치된 천안 청당동유적 14호묘(국립중앙박물관 1993)



도면 4. 목관이 안치된 천안 청당동유적 20호묘(국립중앙박물관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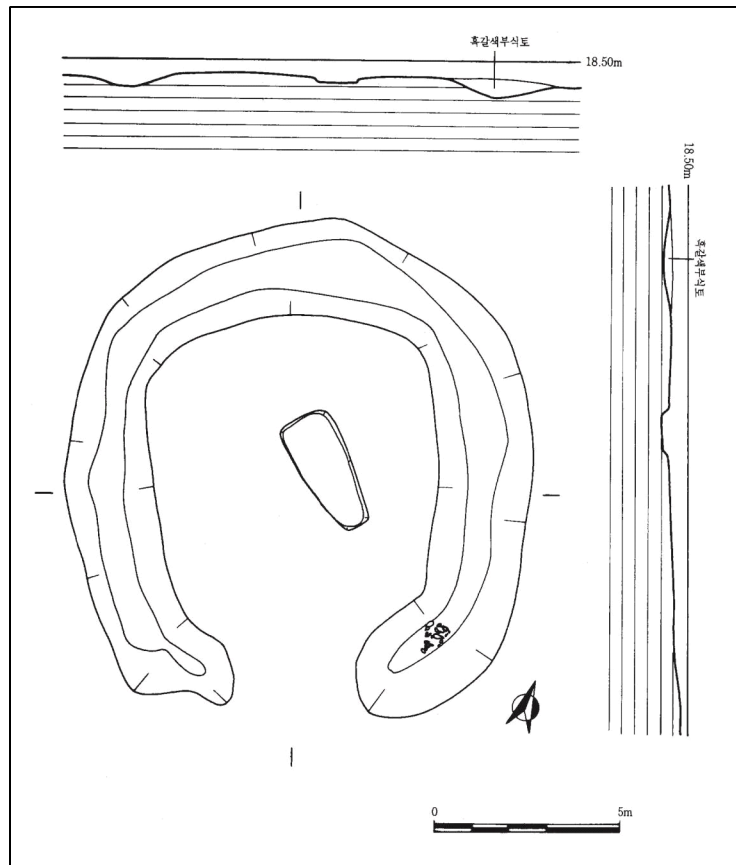
(2) 계통성에 주목한 견해

최완규는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해 계통을 둘로 나누어 서로 다른 묘제로 보았다. 이에 대한 근거는 충청지역과 달리 호남지역에서 확인되는, 주구를 두르고 있지만 매장주체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주구묘였다. 최완규는 보령 관창리유적, 서천 당정리유적, 익산 영등동유적 등에서 명확한 매장주체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주구를 두른 무덤이 나타나기 때문에 충청지역의 주구토광묘와 같이 매장주체시설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천안 청당동유적, 청주 송절동유적, 공주 하봉리유적 등에서 확인되는 묘제는 기존의 토광묘와 구분짓기 위해 주구토광묘로 분류하였다. 반면, 보령 관창리유적, 서천 당정리유적, 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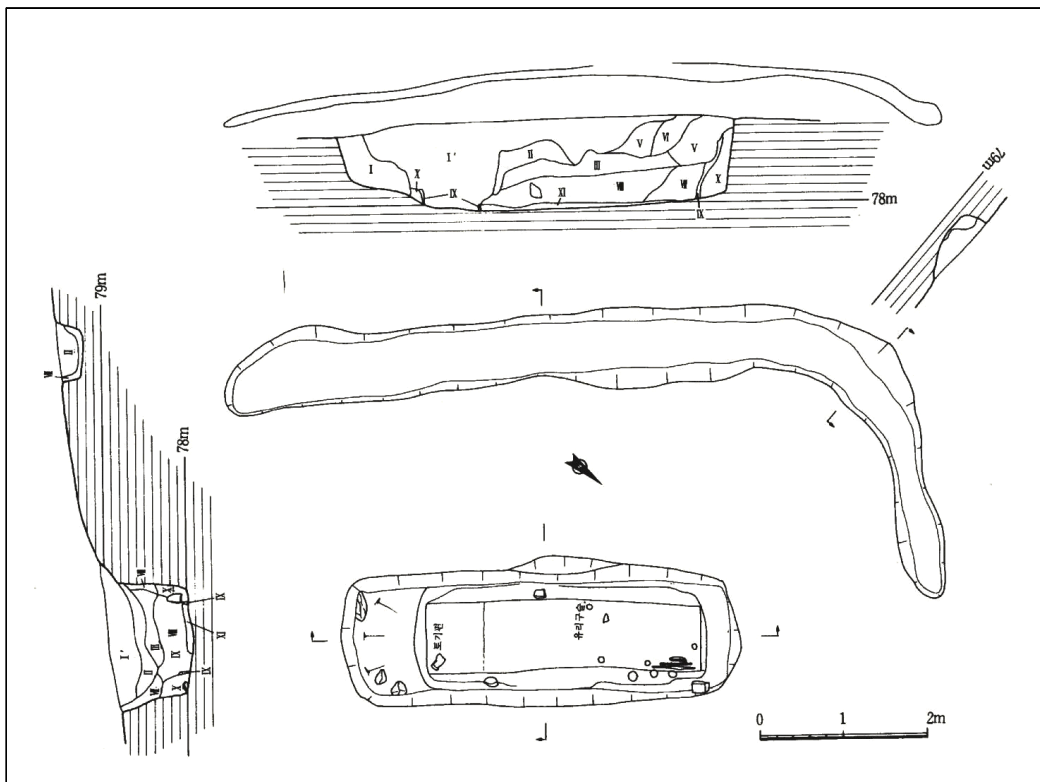
산 영등동유적 등에서 나타나는 묘제는 새로운 형태의 주구묘로 구분지어 바라볼 것을 제안하였다(최완규 1996; 2000; 2002).

최완규의 위와 같은 제안을 하는 대표적인 유적은 익산 영등동유적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청주 송절동고분군, 공주 하봉리유적, 보령 관창리유적, 서천 당정리유적을 함께 살펴 보았다. 익산 영등동유적의 3호묘를 표지 유구로 보았는데 3호묘는 매장주체시설이 지상에 설치되어 발굴 조사 과정에서 매장주체시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를 근거로 최완규는 매장주체시설이 보이지 않는 호남지역의 주구묘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호남지역의 주구묘를 매장주체시설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충청 내륙지역의 주구토광묘와 다른 성격의 묘제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영산강유역 대형분구묘와의 동일성을 인식한 뒤, 선분구 후매장이라는 축조방식을 통해 주구묘를 분구묘에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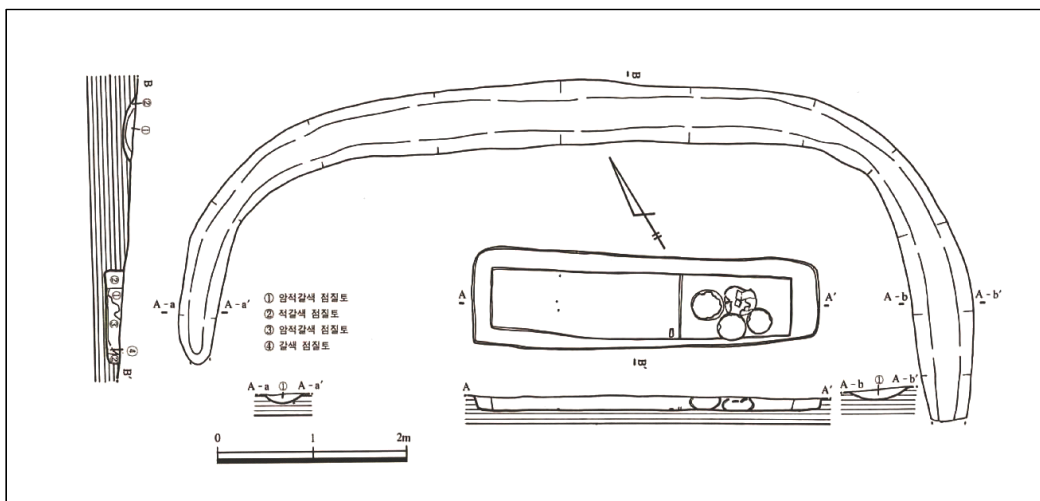
이러한 제안은 조사된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주구를 두른 무덤을 어떻게 인식하고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주구를 두른 묘제를 계통성을 통해 설명한 것은 새로운 시도였다. 하지만 충청지역의 주구토광묘라고 분류한 묘제와 호남지역의 주구묘로 분류한 묘제가 같은 유적에서도 복합적으로 확인되며 제속성에서 비슷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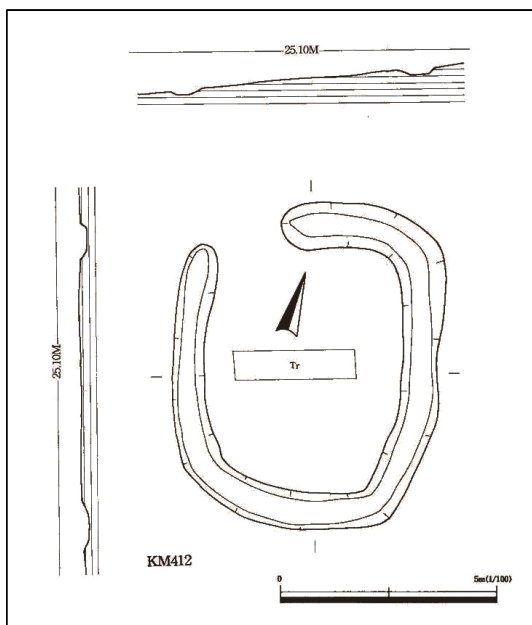
도면 5.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익산 영등동유적 1-3호묘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0)(원도에서 1/2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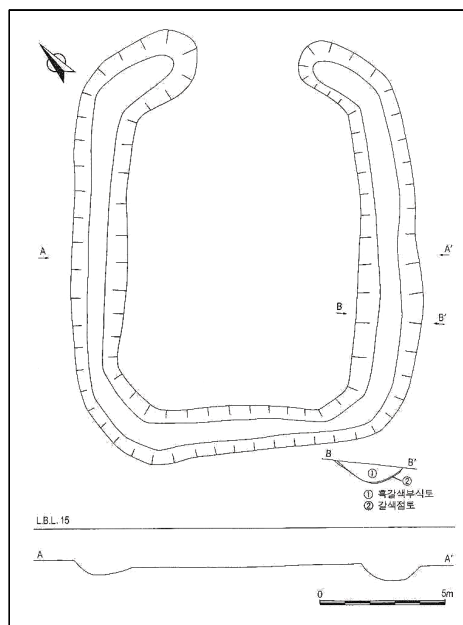
도면 6. 목관이 안치된 청주 송절동고분군 4호분(충북대학교박물관 1994)



도면 7. 목관이 안치된 공주 하봉리유적 1호묘(국립공주박물관 1995)



도면 8.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은
보령 관창리유적 15호묘
(한국고고환경연구소 1997 인용 후 수정)
(원도에서 1/2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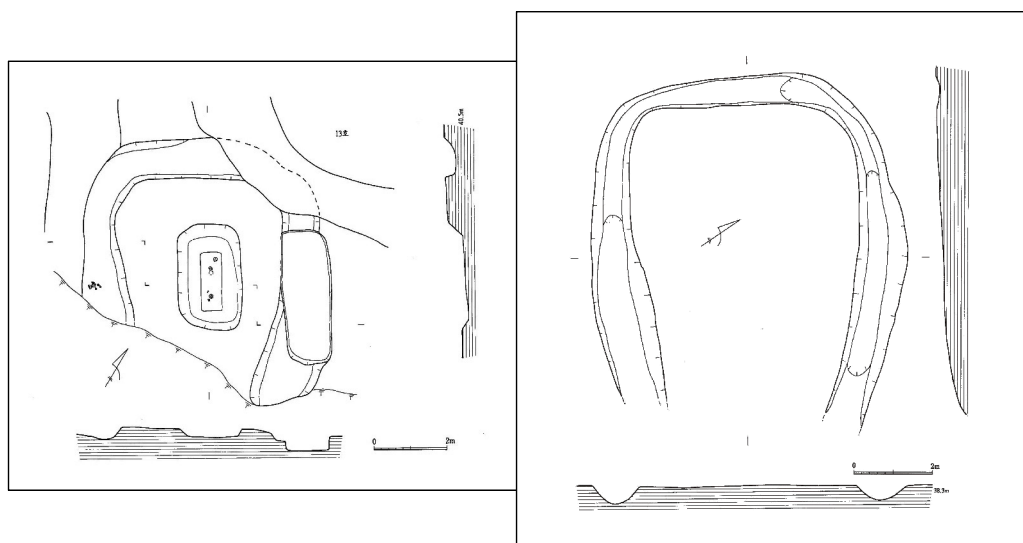
도면 9.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은
서천 당정리유적 18호묘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원도에서 1/3 축소)

최성락은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하여 ‘주구토광묘’를 제안하였다. 용어의 문제에 있어 최완규가 주장하는 주구묘의 매장주체시설도 토광이므로 충청지역의 묘제와 같이 주구토광묘로 부르고자 하였다. 최성락은 주구토광묘와 주구묘의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주구토광묘와 주구묘 사이에 일정한 차이는 인정되지만 그것을 계통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호남지역인 고창 만동유적에서 충청 내륙지역의 묘제인 주구토광묘가 발굴조사 된 점과 충청지역인 공주 하봉리유적에서 주구에 옹관이 매장되는 호남지역 묘제의 특징을 보이는 점을 사례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함평 월야 순춘유적을 제시하며 주구묘 대부분의 주매장시설은 토광묘이며 옹관은 주구나 대상부에 주로 추가장되어 나타나기에 충청 내륙의 주구토광묘와 계통적인 차이보다는 지형적, 시기적인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최성락은 분구묘라는 용어가 마한 사회의 모든 묘제를 통틀어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분구묘는 묘제를 설명할 때 매장주체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큰 묘제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최성락 2000; 2002;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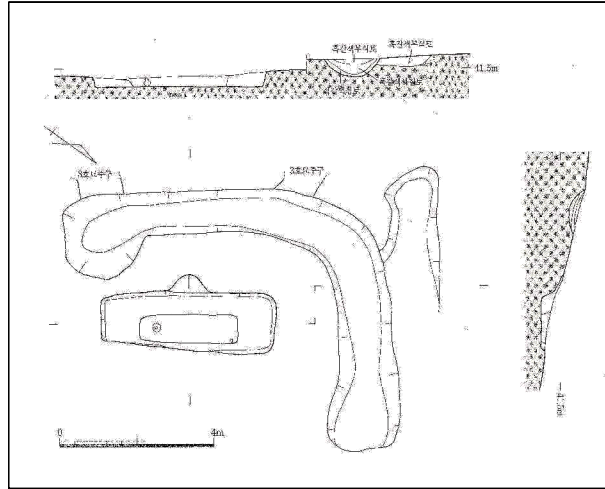
위와 같은 제안의 표지가 되는 유적은 함평 월야 순춘유적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뒷받침되는 유적으로 고창 만동유적, 공주 하봉리유적을 함께 제시하였다. 함평 월야 순춘유

적의 12호묘와 30호묘를 표지가 되는 묘제로 볼 수 있었는데, 12호묘는 매장주체시설이 토광으로 호남지역에서 확인된 충청지역의 묘제이다. 또한, 30호묘는 최완규가 주장하는 호남 지역 주구묘의 특징인 매장주체시설이 지상에 설치되어 확인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함평 월야 순촌유적에서 발굴 조사된 주구토광묘 중 매장주체시설이 확인되는 것의 대부분은 토광이다. 최성락은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매장주체시설이 지상에 설치되어 확인되지 않는 묘제의 매장주체시설 또한 토광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따라서 최완규가 제안하는 충청지역의 주구토광묘와 호남지역의 주구묘(분구묘)의 분류가 계통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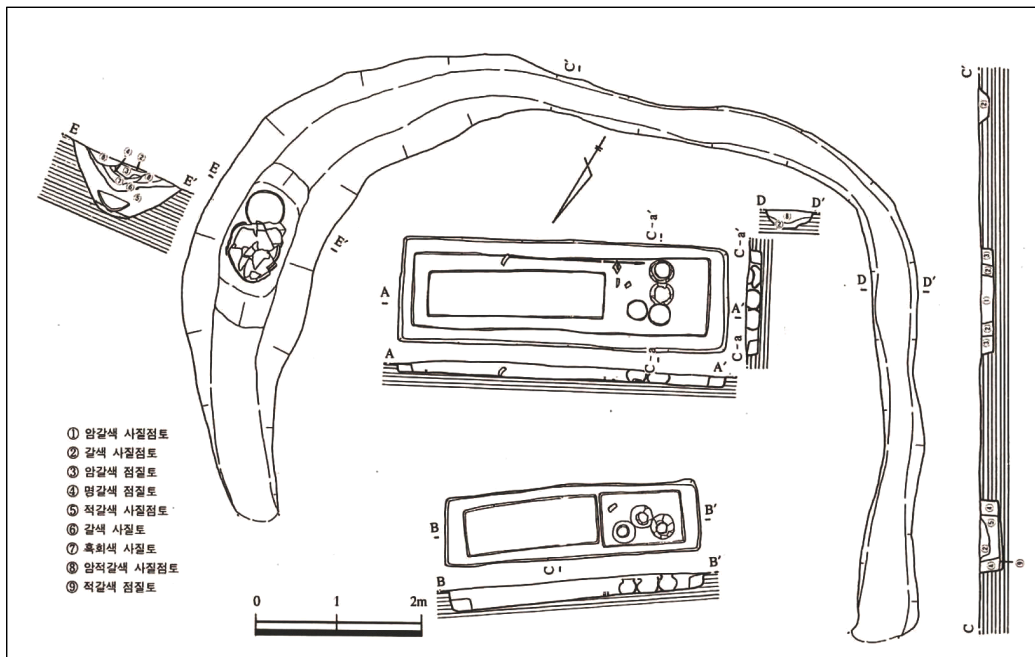
본 제안은 최완규가 두 종류로 인식한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하여 하나의 계통인 주구토광묘로 인식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충청 내륙 지역에서 주구묘의 특징이 나타나는 유구가 조사된 사례와 호남지역에서 주구토광묘의 특징이 나타나는 유구가 조사된 사례를 각각 제시하였다. 실제로 조사된 다른 유적에서도 지역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복합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필자는 최성락의 위와 같은 인식에 동의한다.



도면 10. 목관이 확인되거나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은
함평 월야 순촌유적 12호묘(좌), 30호묘(우)(목포대학교박물관 2001)(원도에서 1/2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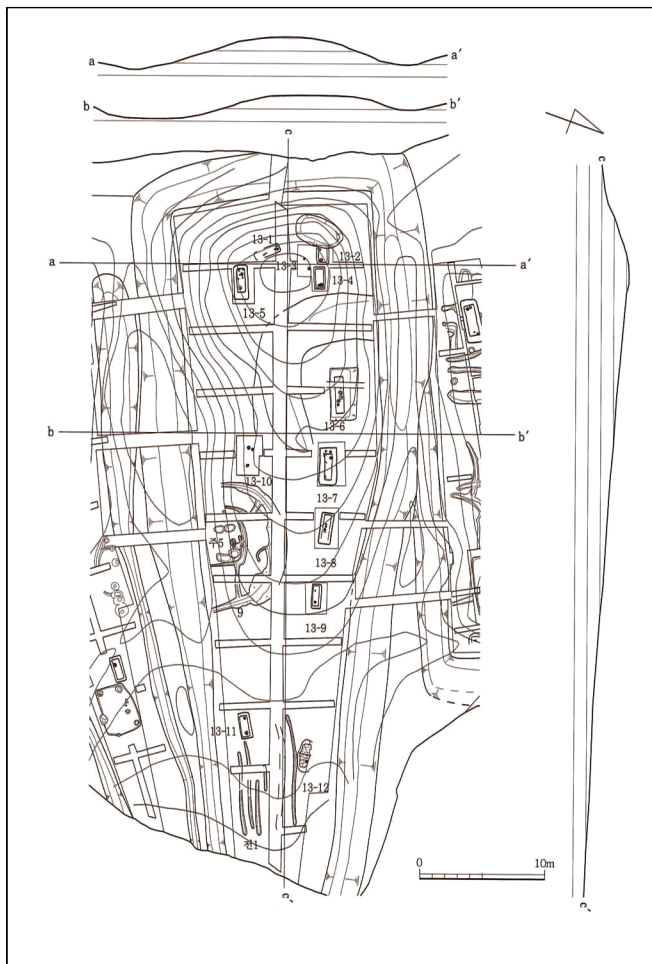
도면 11. 목관이 안치된 고창 만동유적 4호묘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원도에서 1/2 축소)



도면 12. 주구에 옹관이 추가장 된 공주 하봉리유적 8호묘(국립공주박물관 1995)

2) 주구와 분구에 중점을 둔 견해

임영진은 충청지역에서 확인되는 눈썹형의 주구를 두른 주구토광묘와 호남지역의 분구묘를 구분하여 인식할 것을 제안하였다. 매장주체시설에 주목하여 묘제를 바라본 것이 아닌 묘제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주구 시설에 주목하였다. 또한, 주구의 목적을 성토를 위한 채토에서 생겨난 시설로 생각하여 분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임영진은 주구와 분구를 통해 옹관고분과 주구묘의 상관성을 보고 주구묘를 분구묘에 포함시켜 분구묘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분구묘를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호남 서남부지역의 대표적인 마한의 묘제로 보았으며 백제와 구분되는 마한 세력의 존재를 주장했다(임영진 2000; 2002).



도면 13. 분구가 남아있고 추가장 된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 13호분(전남대학교박물관 2004)
(원도에서 1/5 축소)

위와 같은 제안의 표지유구는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의 13호분이다. 평면은 장제형이며 분구가 남아있어 임영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묘제이다. 임영진은 추가장에 주목하여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에서 분구가 남아있는 제형분구묘를 중심으로 묘제를 생각하였다. 방형의 분구묘에서 수평 확장한 후 추가장하며 분구의 형태가 제형으로 변화한 것이며 이를 호남지역 대표적인 분구의 형태로 보았다.

또한, 주구를 두른 무덤은 매장주체시설이 아닌 주구와 (저)분구를 중심으로 대형고분과의 상관성을 살펴보았다. 이는 매장주체시설에 중점을 둔 논의와 다른 새로운 견해로 볼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삭평으로 인해 주구와 분구의 원래 형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주 매장시설에 따른 분류가 배제됨에 의문을 가졌다.

IV. 호서·호남지역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인식과 용어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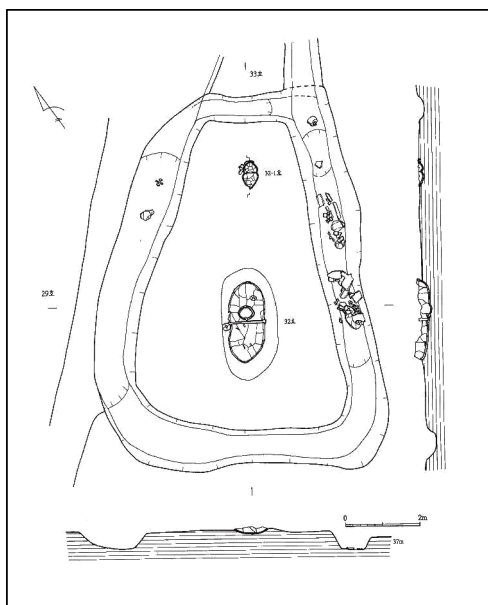
앞서 선학들의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그 동안 묘제에 대한 인식이 주 매장시설과 주구, 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논의를 전개함에 따라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는 논지가 각각 존재하였다. 주구토광묘의 경우는 평면 형태에서 확인되는 주 매장시설을 근거로 분류를 하여 그 양상을 설명하기 용이하였다. 분구묘는 주 매장시설에 주목하기보다 분구에 초점을 맞추어 대형고분과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구의 기능 추정과 분형을 통한 분류가 용이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묘제에 있어 연구자들마다 주장이 상이하고 그 연구를 달리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각 연구를 통해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 모든 주구를 두른 무덤을 설명함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본 장을 통해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해 선학들의 연구에서 차용할 점과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고 필자의 주장에 표지가 되는 유적과 유구를 설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용어를 제안하겠다.

필자는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하여 지하식과 반지하식의 주 매장시설을 중심으로 세분화하여 용어를 구분 짓고자 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묘제의 용어가 어떠한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용어는 계통적인 부분과 특징을 분류함에 있어 혼란을 주지 않으며, 보다 많은 종류의 묘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주구를 두른 무덤만의 특징을 보여 주는 ‘주구’는 용어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삭평되어 원래의 형태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는 주구의 평면 형태와 분구의 형태를 용어상에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 매장시설을 중심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강인구 1994)와 주구를 두른 무덤의 분류는 주매장시설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견해(함순섭·김재홍 1995)가 용어에 혼동을 주지 않고 묘제를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삭평되어 원래의 형태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에서 나오는 분석과 해석의 오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주구의 유무와 지하식과 반지하식의 주 매장시설을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주구를 두르고 지하식과 반지하식에 주 매장시설이 위치하는 모든 묘제를 주구묘로 통칭한다. 주 매장시설이 지상에 위치하여 그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분구묘³⁾로 명명하겠다. 주구를 두르고 지하식과 반지하식에 주 매장시설이 위치하는 모든 묘제를 주구묘로 통칭하며 주 매장시설이 직장토광이면 주구토광묘, 주 매장시설이 목관 또는 목곽이면 각각을 주구목관묘와 주구목곽묘로 세분화하겠다. 묘제의 계통적인 부분에 있어 발굴조사 과정에서 유구의 양상이 계통을 다르게 판단할 정도로 양상이 달리 확인되는 것이 아니며, 각 지역에서 복합적으로 속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주구를 두른 무덤을 하나의 계통으로 인식하는 최성락의 견해(최성락 2002)에 동의한다. 따라서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인식은 각 지역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서로 다른 계통으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묘제는 세분화된 주 매장시설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이해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분류에 추가하여 주구묘에서 옹관고분으로 이행되는 과도기적인 단계의 옹관을 주 매장시설로 하는 주구묘는 ‘주구옹관묘’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묘제에 대한 용어에서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거나 토광, 목관 또는 목곽이 확인되는 경우는 선학들에 의해 많이 다루어졌다. 그러나 주구묘에서 옹관고분으로의 이행기에 확인되는 옹관을 주 매장시설로 가지는 주구묘는 보고서상에서 주구토광묘 또는 분구묘에 포함되기보다 옹관묘로 분



도면 14. 옹관이 안치된
함평 월야 순춘유적 32호묘
(목포대학교박물관 2001)(원도에서 1/2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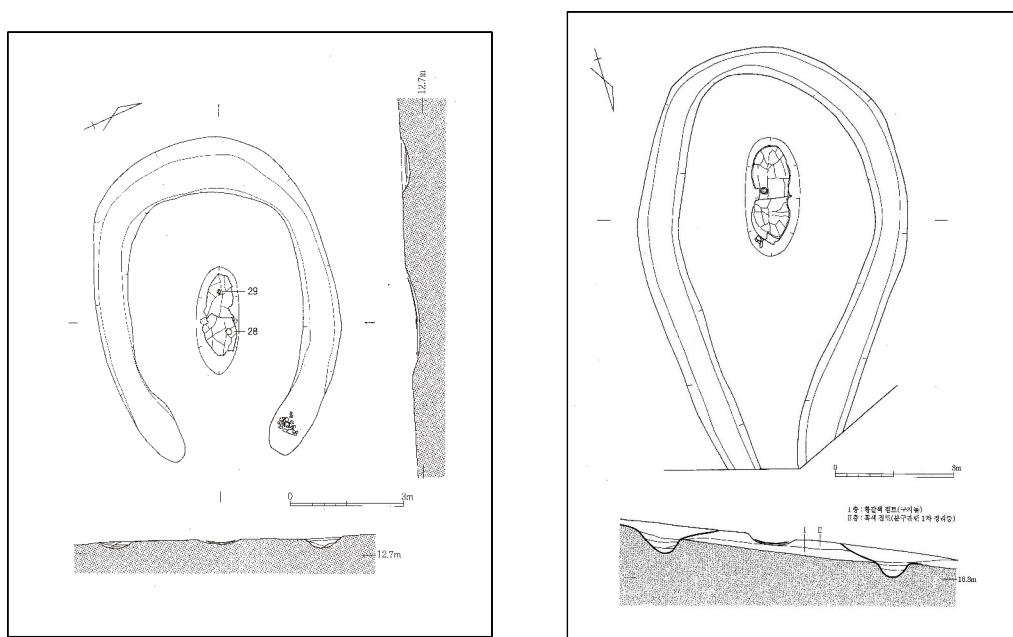
류되어 다른 주구를 두른 무덤과 같이 주목받지 못하였다. 주구를 두른 무덤을 분류하는데 있어 동일하게 주구를 두르고 있으나, 주 매장시설이 옹관이라는 이유로 주구묘가 아닌 옹관묘로 분류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주구묘가 주구를 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묘제와는 차별된 특징이라고 본다. 그리고 옹관을 안치한 주구묘를 옹관묘로 분류하기보다 주구를 두른 옹관묘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적인 제안을 바탕으로 주구를 두르고 지하식 또는 반지하식의 옹관을 주매장시설로 하는 묘제를 ‘주구옹관묘’로 명명해두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의 표지가 되는 유적은 함평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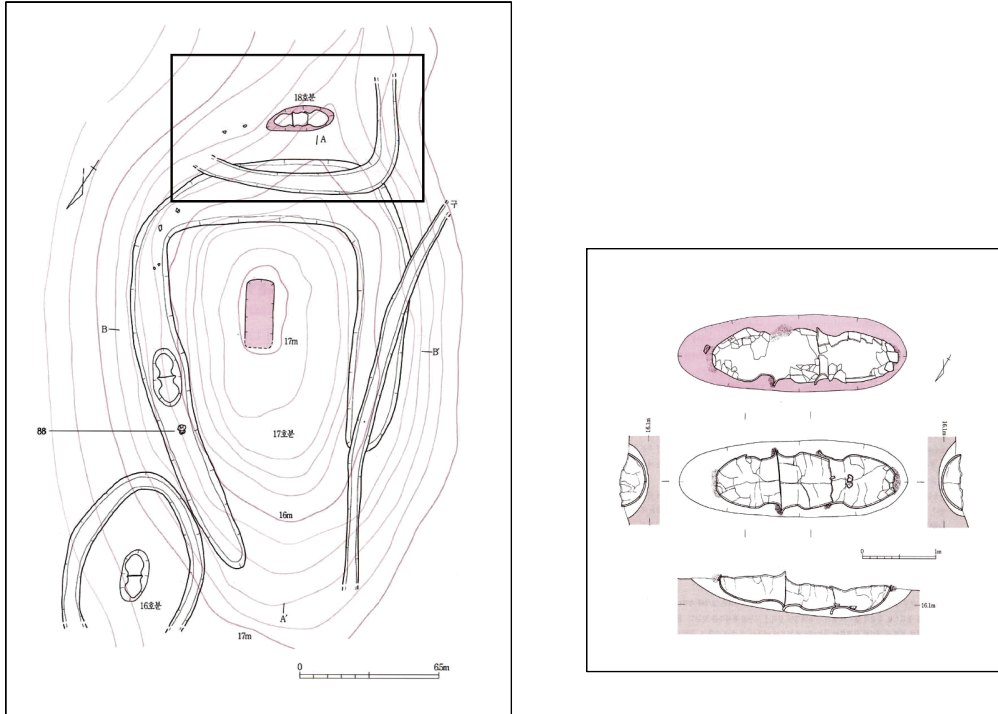
3) 매장주체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명명한 분구묘는 기존 연구자들이 인식한 분구묘가 아닌 일본 고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분구가 있는 무덤’을 가리킨다.

야 순촌유적과 나주 용호고분군이다. 함평 월야 순촌유적의 경우 주구묘 44기 중에서 13기가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었는데 12기는 소위 토광인 반면, 나머지 1기인 32호묘에서 주구를 두른 옹관묘가 확인되었다. 또한, 나주 용호고분군의 경우에는 10호분, 16호분, 18호분에서 주구를 두르고 있으며 주 매장시설에 옹관이 안치된 묘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주구시설에 옹관이 추가장 되는 경우는 주구토광묘 또는 분구묘에 포함시켜 인식하지만, 주 매장시설에 옹관이 안치되었을 때는 옹관묘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옹관이 주 매장시설에 안치되는 주구묘는 다른 주구묘에 비해 소수로 확인된다. 그러나 주구묘가 고분에 선행하는 단계의 묘제라는 관점에서 옹관이 주 매장시설에 안치되는 경우는 앞으로도 다수의 발굴 조사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주구를 두르고 옹관을 주 매장시설로 삼은 묘제에 대한 용어와 인식이 필요하므로 앞서 제시한 용어를 제안해 두고자 한다.



도면 15. 옹관이 안치된 나주 용호고분군 10호분(좌), 16호분(우)
(호남문화재연구원 2003)(원도에서 1/2 축소)



도면 16. 옹관이 안치된 나주 옹호고분군 18호분(좌측 도면 상단),
18호분에 안치된 옹관묘(우)(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인용 후 수정)(원도에서 1/2 축소)

V. 맺음말

본고는 호서·호남지역 내 확인되는 주구를 두른 무덤 구조인 주구토광묘, 주구묘, 분구묘를 학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에 대한 필자의 인식과 용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간의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근거로 삼음으로써 그 범위가 달랐다. 이로 인해 같거나 유사한 묘제를 서로 다른 용어로 정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선학들의 연구경향은 고고학 후속세대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으며, 연구대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분석 기준을 주 매장시설에 둘 것인가와 관련 시설에 둘 것인가에 따라 주구토광묘, 주구묘, 분구묘로 그 용어를 달리 정의하였다. 용어에 따라 상이한 주장은 각각 다루는 유적의 범위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고 계통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귀결되었다.

한편, 주구를 두른 무덤에 대해 주 매장시설이 옹관인 경우 주구를 두르고 있음에도 옹관묘, 옹관고분으로 명명하고 있었다. 주구 시설에 옹관이 추가로 매장되는 경우는 주구토광묘 또는

분구묘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주 매장시설에 옹관이 안치되었을 때는 옹관의 수직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습적으로 옹관묘, 고분으로 정의하고 있다.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주구를 두르고 지하 또는 지면의 주 매장시설이 옹관인 사례도 존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한다면, 주 매장시설이 확인되는 지하식 또는 반지하식의 주 매장시설을 가진 주구를 두른 무덤을 주구묘로 정의하고 주 매장시설에 따라 주구토광묘, 주구목관묘, 주구목곽묘 등으로 세분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렇다면 호남지역에서 보이는 주 매장시설이 옹관인 주구묘의 경우 주구옹관묘로 포함시킬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주 매장시설이 옹관인 주구옹관묘는 분구 대상부의 중심에 옹관이 위치하고 있어 주 매장시설이 옹관임을 유추할 수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와 같은 자료는 많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구묘에서 옹관고분으로의 이행을 생각한다면 주구묘의 주매장시설로 옹관묘를 매장한 묘제는 꾸준히 조사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주구옹관묘라는 가설적인 용어의 제안과 함께 앞으로 꾸준히 발굴될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덤은 보수적인 유구로 불릴 만큼 쉽게 변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다룬 주구를 두른 무덤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매장 양식으로 전개되었고, 호남지역은 옹관고분으로 발전된 것으로 여겨진다. 원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무덤 구조의 변화와 분구 내 매장하는 전통은 일정한 계기성을 가지고 발전되었을 것이다. 호남지역에서 보이는 분구 내 옹관매장이라는 옹관고분의 등장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구를 두른 무덤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옹관이라는 지역적 산물이 조합되면서 5세기 고총의 옹관고분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추정해본다.

참고문헌

- 姜仁求, 1994, 「周溝土墳墓에 관한 몇가지 問題」, 『정신문화연구』5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공주대학교박물관, 2009, 『해미 기지리 유적』.
- 국립공주박물관, 1995, 『하봉리 I』.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당정리 -주거지 및 주구묘 발굴조사보고서-』.
- 국립중앙박물관, 1993, 『청당동 I』.
- 김승옥, 2011, 「중서부지역 마한계 분묘의 인식과 시공간적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71, 한국상고사학회.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1, 『영광 군동유적 -라지구 주거지·분묘-』.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1, 『함평 월야 순촌 유적』.
- 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2, 『곡성 대평리 유적』.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00, 『익산 영등동 유적』.
- 이택구,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馬韓 墳丘墓」, 『한국고고학보』66, 한국고고학회.
- 이택구, 「전북지역 분구묘의 제 속성 비교 검토」, 『한국고고학보』97, 한국고고학회.
- 임영진, 2000, 「백제건국이전의 마한사회의 변모」,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회』10, 한국상고사학회.
- 임영진, 2002, 「영산강유역권의 분구묘와 그 전개」, 『호남고고학보』16, 호남고고학회.
- 전남대학교박물관, 2004, 『함평 예덕리 만가촌고분군』.
- 전북대학교박물관, 2010a, 『상운리 I』.
- 전북대학교박물관, 2010b, 『상운리 II』.
- 전북대학교박물관, 2010c, 『상운리 III』.
- 충북대학교박물관, 1994, 『청주 송절동 고분군』.
- 최성락, 2000, 「호남지역의 철기시대」, 『호남고고학보』11, 호남고고학회.
- 최성락, 2002, 「삼국의 성립과 발전기의 영산강유역」, 『한국상고사학보』37, 한국상고사학회.
- 최성락, 2007, 「분구묘의 인식에 대한 검토」, 『한국상고사학보』62, 한국상고사학회.
- 최완규, 1996, 「주구묘의 특징과 제문제」, 『고문화』49,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최완규, 2000, 「호남지역 마한분묘 유형과 전개」, 『호남고고학보』11, 호남고고학회.
- 최완규, 2002, 「전북지방의 주구묘」, 『동아시아의 주구묘』, 호남고고학회.
- 한국고고환경연구소, 1997, 『관창리 주구묘』.
- 함순섭·김재홍, 1995, 「천안 청당동유적 1단계 조사보고」, 『청당동 II』, 국립중앙박물관.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나주 용호 고분군』.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고창 만동유적』.

A Reconsideration of the Ditch-enclosed Tombs of the Hoseo and Honam Regions

– Scholarly Perceptions of Jugu-Togwangmyo, Jugumyo, and Bungumyo –

Jeon Minsik*

Tomb types known as ‘Jugu-Togwangmyo’, ‘Jugumyo’, and ‘Bungumyo’, which feature a ditch surrounding the main burial structure for a body, are found in the Hoseo and Honam regions. Although research on these tomb types has been fairly active, there has yet to be an agreement on the terminology or guidelines for defining a burial structure as such. Furthermor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term of Bungumyo, confusion has increased over how to name such ditch-encircled tombs. This paper reconsiders the approaches, standards, and recognition guidelines that have previously been used by researchers for the ditch-encircled tombs of the Hoseo and Honam region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roposes a hypothetical alternative term.

Ditch-encircled tombs were given different name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main burial structure, the origins and genealogy of such tombs, or the ditch and mound features.

It is proposed in this paper that all ditch-encircled tombs have the same genealogy and that they can be subdivided again on the basis of the main burial structure. Exempting tombs in which the main burial structure was located above ground, those with semi-subterranean and subterranean burial structure were regarded as ‘Jugumyo’, and further classification was carried out based on burial structure type. Namely, it is suggested that, in the case that the main burial structure was a pit, a wooden coffin, a wooden chamber, or a jar, each can be referred to, respectively, as ‘Jugu-Togwangmyo’, ‘Jugu-Mokgwanmyo’, ‘Jugu-Mokgwakmyo’, or ‘Jugu-Onggwanmyo’. Moreover, the contradictions in naming the jar coffins surrounded by ditches,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jar within the entire burial structure, was pointed out.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such cases involving jar coffins since they are associated with the transition to the large jar coffin tombs of the Honam region.

Key words : Hoseo and Honam regions, Jugumyo, Jugu-Togwangmyo, Bungumyo,
main burial structure, jar coffin tomb

* Mokpo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